

제126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일 시 : 2018. 3. 28.(수) 07:30

장 소 : 달개비(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옆)

참석자 : 이사 7명, 감사 1명

- 이 사 : 7명 참석
- 감 사 : 1명 참석

심의안건

- [제1안건] 서울연구원정관 일부개정(안)
- [제2안건] 이사 후보자 추천(안)
- [제3안건] 2017 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안)
- [제4안건] 2017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안)
- [제5안건] 2017 이익잉여금 처분(안)
- [제6안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7안건]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 [제8안건]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위탁(안)

보고안건

1. 기금운영보고
2. 2018년 이사회 운영계획

회의록 내용

: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사장님과 이사님,
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보고에 앞서 서울시
은 서울시 업무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시고,
께서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이사 9분 중 7분과 감사님이 참석하여 정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성원이 되었습니다.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연구원 제126회 정기이사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2018년도 서울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년도 서울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 :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견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먼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계획이 쉽지 않은데, 계획을 잘 수립하신 거 같습니다. 이 계획대로 한다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미리 예산 확보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받는 것인가요?
- :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인원을 확정하고, 연구원에서 작성한 연봉테이블에 의해 산출을 해서 서울시와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조직과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왕진 이사 : 정원이 확정되지 않으면,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는 없어서 하반기 예산은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이드라인과 서울시 지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 협의는 하겠지만, 전례를 보면 당해 연도 예산이 추가로 지원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는 현재 여건으로 가야 할 것 같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산 때문에 내년에 전환할 것이냐, 금년 하반기에 할 것이냐, 의견도 있었는데요, 신분상의 불안정성이 계속 있으니 준비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모았습니다.

- : 기왕 큰 정책의 출기를 이어서 하려면, 예산까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 70%를 목표로 정하신 거면 30%는 탈락시키겠다는 의미인데, 상당히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 :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기본적으로 1, 2차 과정 안에서 100%를 선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저희들이 해보니까, 고민은 비정규직의 업무량이 100%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규직 전환을 하면 원래 했던 업무를 한 사람이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세 사람이 하던 업무를 두 사람으로 줄인다든가, 전환을 해야 한다면 남는 인원을 다른 업무를 준다든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 부원장님이 TF에서 그 작업을 했었는데요, 현재 비정규직 연구원 중, 기간제연구원이라고 해서 1년 정도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있고, 위촉연구원이라고 해서 3개월, 6개

월 단위로, 연구기간에 따라 계약하는 직원들이 있는데요, 기간제연구원은 서울시 출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다고 보고, 전체적인 업무의 양과 나머지 부분을 고려해서 전환규모를 산출했습니다.

- : 인사관리 전공자가 있나요?
- : 저희 도시경영연구실에 그런 분야를 연구하는 행정학 박사들이 있습니다.
- : 위촉연구원은 사실 연구책임자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대부분 많은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연구책임자가 프레임만 짜고, 글은 위촉연구원에게 넘기는 하청구조로 이미 기본적인 권력 관계를 수반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부평가는 그 사람을 고용해 봤던 사람의 입김이나 발언, 그 다음 관건이 능력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관건인 밸런스를 어떻게 객관적인 지표와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조율할 것인가, 위촉연구원이 정규직 연구원이 되었을 때 연구원에서 지향하는 젠더밸런스나 아니면 마이너리티나, 특수한 지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타겟은 어디로 가져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젠더 밸런스는 박사 연구원의 경우 남성이 많은데요, 위촉연구원을 포함하면 50대 50정도 됩니다. 위촉연구원을 정규직으로 하면 전체적인 비율은 맞을 거 같습니다. 다른 세부적인 지표는 장애인 문제 말고는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평가 관련해서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고, 공식적으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의 밸런스를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 완전 공채가 아니라, 내부 직원들의 전환이기 때문에 완전히 객관적인 외부위원분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전환이라는 취지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동안의 근무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하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일부 박사의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 내부평가를 할 때도 여러 명의 박사님들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와 본부장도 평가할 예정이고, 전체 점수에 일부는 발표와 면접을 할 계획으로, 그때는 외부위원도 모셔서 정규직 박사 채용처럼 전체 점수를 합산해서 할 생각합니다.
- : 어려운 일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외교연구센터를 신설 했는데 좋은 거 같습니다. 역할도 무궁무진하게 있을 것 같고, 연구원에서 장려하겠지만, SeTTa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서울시에서 도시외교에 접점이 되는 지점 같습니다.
가령 박물관의 경우 도시외교 전문가가 오면 일차적으로 박물관에 오던지 아니면 우리가 연구원으로 보내기도 하고, 연구원에 갔다가 박물관에 오기도 하고, 또 시립대에서 외국공무원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이것을 각각 하시지 말고 비공식적으로 공유도 하고,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운영자문을 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관한, 수준 높은 학습적 관심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책 출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자원을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SeTTa도 참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이 중에는 협업해야 할 곳이 있기도 하고, 다 같이 참여를 해야 하겠지만 핵심 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유하는 것이 무엇이며, 시너지는 무엇인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 투자·출연기관이지만, 시립대도 필요하면, 참여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 : 네, 알겠습니다.
- : 언론에서 나오는 '맞춤형'이라는 용어가 미세먼지를 얘기할 때도 사용되고 있는데, '맞춤형 복지'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복지를 변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맞춤형이 맞지만, 미세먼지 대책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우리나라 전체에, 다른 지역과의 협조체계라든지 전반적인 국가 미세먼지 정책과의 조율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학교를 휴교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워킹맘들 아이들은 어디에서 돌보게 하나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갈 경우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티 돌봄이 가능한가에 대한 대안도 없으면서 선언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데, 그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맞춤형'이란 용어는 조급하고 단기적인 방식으로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원에서 '맞춤형'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 의미 있는 말씀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문제는 오히려 전체적인 큰 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맞춤형이라는 것이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 : 서울시가 맞춤형으로 하려면 KS 인증된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나눠 줬으면 좋겠어요.
- : 나눠 주는 것도 좋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
- : 저는 서울시가 어떤 부분에서는 마스크 개발이나 환경지향적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든지, 좀 장기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건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서울시만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 :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나 방향, 특히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어야 하고, 그에 맞춰서 서울시는 더 진취적으로 나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책방향과 관련해서 저희도 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연구도 하겠습니다.
- : 실무의견들이 있었는데, 더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결산보고를 위한 3개 안건과 서울시 처리기준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 안건,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 안건, 이사 후보자 추천 안건, 복무규정 개정 안건,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위탁 안건 등이 있습니다.
오늘 안건이 많습니다. 안건 처리 후에 보고안건으로 기금운영보고와 2018년 이사회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의안건입니다. 서울연구원정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서울연구원정관 개정(안) 제안 설명]
- : 조례 개정을 반영한 개정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시의회의 개정된 조례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 : 조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이사 후보자 추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사 후보자 추천(안) 제안 설명]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선임절차 근거조항을 보시면, 기존에는 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하는 절차였는데, 지난번 원장 임용 때부터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사회 2인, 시의회 3인, 서울시 2인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2배수를 선정하여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 : 이 말씀하셨지만, 절차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법률이 생기기 전에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추천하면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절차인데, 그 절차는 그대로 두고, 또 다른 법에 의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는 절차가 생겨서, 임원을 추천하는 방식이 2가지로 병합되었어요. 지난번 이사회에서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도록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 구성했기 때문에, 그 결정에 의해 이사회에서 위임한 2배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2배수 추천하는 것은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에 있나요?

- : 네, 그렇습니다. 2배수 이상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6분을 추천해 주신 건데, 여기 1, 2, 3위로 올라 오신분이, 시장님의 임명하실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1, 2, 3위 세분이 모두 교수님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사진으로 참여하려면 다양한 배경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시민단체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던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이사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 말씀은 정말 좋은 거 같습니다. 이사회에서 순위를 바꿀 수는 없지만, 서울시로 보내면서 이사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의견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 공개모집 절차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향후에는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사 후보자 6명을 추천하는 안건은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결산 관련 안건을 상정하는데, 심의안건 중에서 3개 안건이 2017년 결산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려고 하는데, 의견 있으시죠?
- : 의견 없습니다.
- : 그러면, 2017 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안), 재무회계 결산(안), 이익잉여금 처분(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17 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안), 재무회계 결산(안), 이익잉여금 처분(안) 제안 설명]
-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정관에 따른 안건으로 연구원에서는 지난 2월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수감하였고, 연구원의 결산보고가 공정하게 작성되었다는 감사의견을 받았습니다. 오늘 회계법인 관계자께서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의견 부탁드립니다.
- : 서울연구원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수행했고, 감사 수행결과는 회계처리 기준에 의해서 '적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전기 대비 당기에 어떤 비정상적인 미결제가 발생해서 회계처리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 비정상적인 항목이 발견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회계감사절차로 볼 때 발견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 : 고맙습니다. 그러면, 감사님으로부터 결산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 : 지난번에 서울연구원을 방문하여 재무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했습니다. 간략히 그 결과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연구원의 2017년 재정운용은 '건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금융기관의 차입금이 없는 무차입기관의 경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운영원칙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예산회계 결산(안)인데요, 2017년도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서 22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은 기본재산 적립과 다음년도 이월예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기본재산이 12억 원 적립되어 58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기본재산 규모가 점차 적립됨에 따라 좀 더 세심한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재무회계 결산(안)인데, 삼일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결과는 '서울연구원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자산, 부채, 자본이 2016년 보다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기관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손익실적을 보면, 당기순이익 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 발생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증대하거나 비용의 축소인데, 어느 측면이냐고 물어 보니 비용 축소로 인한 수익증대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연구원이 비영리법인이긴 하지만 수익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하고, 연구원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익잉여금 처분(안)입니다. 2017년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을 합해 65억 원입니다.

기본재산으로 12억 원, 그리고 이자수입 2억 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이것은 「법인세법」 및 서울시 지침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서울연구원 2017년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 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 이익잉여금 처분에 있어서, 기본재산이 2016년도에 15억 원, 2017년도에 12억 원이 전출되어 그 전에 적립한 것을 감안하면 27억 원 이상인데,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요?
- : 합니다.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정관에 의하면, 기본재산은 연구원 운영과 시설운영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나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기본재산이 적립되어 있는데, 사용하기 위해 고민하기 보다는 앞으로 연구원의 공간 문제나 운영과 관련된 특별한 구상이 마련되면,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적립된 게 얼마입니까?
- : 46억 원이고, 이번에 12억 원을 적립하면 58억 원이 됩니다.

- : 매년 이정도 이익잉여금이 발생하나요?
- : 작년에 15억 원이고, 올해는 12억 원입니다.
- :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연구원은 알뜰하게 잘 운영하죠.
- : 일반사업비에서 사고이월이 된 것은, 원래 연말까지 집행해야 하는데 집행을 못해서 사고이월이 되는 건가요, 수탁사업비는 계속사업비라고 하고, 일반사업비는 사고이월이라고 하나요?
- : 연중에 계약을 하고 지출하지 못한 예산과 자체과제 중에 연말에 시작해서 다음연도 초까지 진행하는 과제를 사고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 : 다른 의견 없으시면, 3개 안건 모두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연구원에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에 신임 박사 3명을 채용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산 절차상 채용 예정인원의 인건비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임용을 하면 다시 인건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감사실을 신설하면서 경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제안 설명]
- :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건내용 적용이 가능한가요?
- :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 : 서울시 공무원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 단위로 정확히 사용한 만큼 반영하게 됩니다.
- 좋은 거 같습니다.
- : 근로자에게 더 좋은 거죠.
- : 네, 그렇습니다.

○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안건인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위탁(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위탁(안) 제안 설명]

○ :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위탁(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기금운영보고 및 2018년 이사회 운영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 : [기금운영보고 및 2018년 이사회 운영계획 설명]

○ : 기금운영과 2018년 이사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기금 사항은 앞선 결산안건과 연계된 사항으로 볼 수 있겠고, 연구원에서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안건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사회에 참석하여주신 이사님들과 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연구원 제126회 정기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록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018. . .

이사장 :

이사 :

이사 :

이사 :

이사 :

이사 :

감사 :